

자연사 박물관의 전시특성

김찬중, 이창진, 신명경

세계의 우수 자연사 박물관의 전시특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신 & 이, 2003) 다루었던 대부분의 박물관이 서구의 것이었다. 한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동양의 박물관에 대한 구체화된 분석이 시작되어야 함을 제안하며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자연사 박물관의 전시특성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여 상대적으로 서구의 자연사 박물관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비형식적 교육기관으로서의 남다른 역할인식에 대한 파악을 하고자 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자연사 박물관 비교분석은 대표적인 하나씩의 박물관 전시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는 비교에 목적이 있지 않고 동양문화권으로 특징지어지는 것들에 대한 파악에 있다. 한편 최근에 있었던 일본의 자연사 박물관의 변화의 과정을 재점검 하면서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행된 새로운 형태의 전시물에 대한 소개를 통해 국내 자연사박물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자연사 박물관이 동양권에서는 패권주의나 제국주의의 유물로서 시작된 서구와 차별화되며 비형식적 교육의 장으로서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앞으로 보다 활발한 교육장으로서의 자리잡을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